

“어린이만화 성인용 댁아간다”

서울 YWCA 조사 폭력·마약·삼각관계 거침없이 다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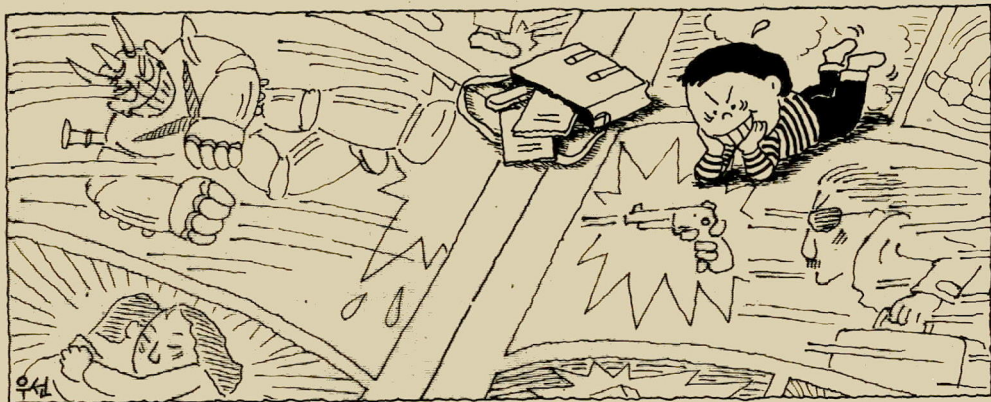
어린이만화의 소재로 마약, 폭력, 삼각애정관계 등 성인만화와 구별하기 힘들 정도의 소재를 다룬 작품이 최근 어린이만화잡지에서 크게 늘고 있어 교육적 부작용을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최근 서울 YWCA 어린이만화 모니터모임이 어린이들에게 가장 널리 읽히고 있는 <소년중앙> <보물섬> <만화왕국> 등 3권의 어린이만화잡지 올 4월호와 지난해 4월호에 실린 만화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는 1편도 없었던 전쟁·폭력물이 올해 2편이나 새로 연재되고 있고, 로봇을 내세워 대리폭력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상만화도 지난해 5편(9.6%)에서 13편(21.7%)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호에는 공상만화의 비중이 32.2%로 더욱 늘어나 어린이들의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키워준다는 본뜻은 흐려지고 오히려 현실무시나 도피성향을 부추길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

또 명랑·순정만화가 말장난, 텔레비전 코미디 흉내, 삼각애정관계를 주된 소재로 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화가 이희재(38)씨는 이런 만화들이 양산되고 있는 까닭을 “만화가들이 어린이잡지에 연재한 만화를 단행본으로 엮어 만화대본소에 넘길 것을 염두에 둔 나머지 어린이뿐 아니라 청소년·



전쟁·범죄행위 구체적 묘사등 부작용 심각 영웅주의·경쟁심 조장... 현실적 삶 아쉬워

성인층의 구미에 맞는 소재를 택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전쟁만화 중에는 한국계 미군 특수부대 상사가 초인적인 싸움꾼으로 등장, 배트공을 무차별 살육하는 줄거리의 내용도 있어 어린이만화 주제의 폭력영웅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화계에서도 높은 형편이다.

만화평론가 위기철씨는 “만화도 일종의 예술이라면 읽는 사람들에게 정서적 환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호된 감동을 줘야 한다”며 “그 감동을

말초적인 감각의 자극이나 억지웃음을 통해 얻으려다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위씨는 또 “좋은 만화란 넓은 어깨, 긴 다리, 파란 눈이나 초능력·신통력을 갖춘 비현실적인 주인공이 등장하는 만화는 아닐 것”이라며 “현실적인 주인공이 등장해 우리들의 삶과 결부된 내용을 꾸려나가는 바람직한 만화의 모습이 아쉽다”고 말했다.

만화평론가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요즘 만화의 문제점은 △순정만화는 계층상승의 욕구를 부

추치고 △폭력물은 영웅주의에 빠지게 하며 △스포츠물은 승부에 초점이 맞춰져 이기주의와 지나친 경쟁심을 키워주기 쉽다는 것 등이다.

서울 YWCA 어린이부 박영숙 간사는 “현재 한국도서잡지주관윤리위원회의 만화윤리실천요강에 만화가 범죄방법 및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표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전쟁·마약·폭력을 소재로 한 만화가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